세종(世宗, King Sejong)의 '정음 언어관'의 맥락에 대하여[1]
-'통합'과 '유통(流通)' 관점에서의 재조명-

김 슬 옹 (동국대)

<차 례>

1. 머리말
2. '정음'의 개념과 갈래
3. 세종 정음 또는 정음관의 형성 과정
4. 세종 '정음'의 주요 배경과 사상
5. 맺음말
참고문헌

1. 머리말

소리나 정보와 뜻, 그리고 생각을 문자로 적으려는 인간의 욕망은 오래 되었다.[2] 그러한 욕망은 자연스럽게 싹튼 것이었으나 그것이 실제 문자로 탄생되고 발전되어 가는 과정은 상당한 권력과 문화적, 사회적 성숙이 필요했다. 그래서 인류의 말소리 역사에 비해서 문자의 역사는 매우 짧은 편이고, 자연 언어로 살아남아 있는 모든 문자는 그 어떤 문자든 숭고한 역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 문자사에서 한자(漢字) 또한 소리와 뜻을 담는 문자로 자연스럽게 탄생해 발전을 거듭하면서 고대 문명부터 거대한 문화와 역사를 담아 낸 문자였으나 섬세한 소리를 담고자 하는 욕망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말소리를 섬세하게 반영할 수 없는 한자의 한계는 역설적으로 바른 소리[正音]를 적고자 하는 욕망을 더욱 부추겼으며 이른바 천지자연의 이치를 담은 정음 언어관이 발전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중국은 불경 전래와 더불어 산스크리트 문자와 같은 음소 문자의 영향으로 말소리를 연구하는 성운학이 더욱 발달하

1) 그동안 세종(世宗)을 임금이나 주로 정치가로서만 보아왔으나 이제는 사상가이자 언어학자로 평가하고 조명해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국제적으로도 세종을 언어학 사상가로 조명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Margaret Thomas(2011). Fifty Key Thinkers on Language and Linguist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49-55."에서 세종을 언어와 언어학 분야의 50대 사상가로 뽑고 있다. 그러나 '한글'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 비해 '세종'에 대한 평가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한글'에 대한 국제적 평가 흐름에 대해서는 이기문(1996) 참조.

2) 인류가 지구에서 살기 시작한 것을 대략 9만 5천년으로 보고 문자 사용 역사는 대략 5천 년으로 본다.

였고, 11세기 송나라의 소옹(邵雍, 1011-1077)에 의해 그 이론은 정밀하게 체계화되었다.[3] 그러나 그러한 이론은 이론으로만 남고 바른 소리를 실제로 보여주거나 적는 데는 이르지 못하여 바른 소리, 곧 '정음(正音)'은 관념으로만 남게 되었다.

말소리를 자연스럽게 적고자 하는 욕망은 한자의 절대 모순과 그로 인해 발달한 성운학을 바탕으로 15세기에 조선이라는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새로운 소리 문자로 탄생하게 되었다. 훈민정음 창제를 알리기 몇 년 전인 1440년(세종 22년)의 용(龍) 사건은 정음의 실체에 접근해 들어간 세종의 사유방식을 보여 준다. 1월 30일, 제주도 안무사로 내려간 최해산은 "(제주도) 정의현(旌義縣)에서 다섯 마리의 용이 한꺼번에 승천하였는데, 한 마리의 용이 도로 수풀 사이에 떨어져 오랫동안 빙빙 돌다가 뒤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다급한 보고였지만, 세종은 오히려 차분하게 묻는 교지를 내렸다.

> 용의 크고 작음과 모양과 빛깔과 다섯 마리 용의 형체를 분명히 살펴보았는가.
> 또 그 용의 전체를 보았는가,
> 그 머리나 꼬리를 보았는가, 다만 그 허리만을 보았는가.
> 용이 승천할 때에 구름 기운과 천둥과 번개가 있었는가.
> 용이 처음에 뛰쳐나온 곳이 물속인가, 수풀 사이인가, 들판인가.
> 하늘로 올라간 곳이 인가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 구경하던 사람이 있던 곳과는 거리가 또 몇 리나 되는가.
> 용 한 마리가 빙빙 돈 것이 오래 되는가,
> 잠시간인가. 같은 시간에 바라다본 사람의 성명과, 용이 이처럼 하늘로 올라간 적이 그 전후에 또 있었는가와, 그 시간과 장소를 그 때에 본 사람에게 방문하여 아뢰도록 하라.[4]

말소리와 문자에 관한 논의에서 웬 용의 이야기인가 싶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세종의 정음 언어관은 중국의 고대 언어관을 체계화시키고 이론화했던 소옹의 정음 언어관과 근본 취지나 틀은 크게 다를 바 없다.[5] 그러나 중국의 음운학자들에게 '정음'은 용이었다. 이론과 관념으로는 분명 '정음'은 존재하고 그 가치와 의미는 풍성한데 실체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천지자연의 소리를 담은 문자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고대에는 기초적인 상형 문자를 통해 소리를 보여 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소리의 이미지였지 소리의 속성은 아니었고 단어 글자인 한자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음운 문자라고 소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소리를 분절적으로 보여주는 전략과 이미지로 보여주는 전략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소옹이 정음관(正音觀)을 체계화했던 시대에는 산스크리트 문자와 같이 한자와는 전혀 다

---

3) 소옹(소강절)이 쓴 황극경세서(皇極 經世書)의 주요 내용은 해와 달, 천체의 운동에 관하여 쓴 관물론(觀物論)으로 관물내편(觀物內篇)과 관물외편(觀物外篇)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물외편 7절에서 '정음론'을 칠정(七政)과 매화역수(梅花易數)를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소옹의 정음 사상은 주희의 성리학 사상과 채원정의 율려신서(律呂新書)의 바탕이 되었고 특히 소옹의 '황극경세성음창화도'는 성리학의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4) 龍之大小形色及五龍形體, 分明見審乎? 且見其龍之全體乎? 但見其頭尾乎? 但見其腰間乎? 龍之昇天時, 有雲氣雷電乎? 龍之初起處, 水中乎? 林間乎? 原野乎? 昇天處, 與人家相距幾里乎? 與望見人所在處相距又幾里乎? 一龍盤旋久近, 一時望見人姓名及龍之如此昇天前後有無與夫年月處所, 訪問其時所見人以啓._세종실록 1440년 1월 30일자

5) 소옹의 정음관 역시 기존 업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신숙주가 쓴 '홍무정운역훈 서문'에 보면 "음운은 횡으로 칠운이 있고 종으로 사성이 있는데, 사성은 강좌에서 시작되고 칠음은 서역에서 기원하였다(切惟音韻 衡有七音 縱有四聲 四聲肇於江左 七音起於西域)."라고 하여 중국 성운학의 발달 계보의 한 단면을 밝힌 것이다.

른 계열의 문자가 들어왔음에도 그런 이질적인 문자를 모방하거나 빌려 적을 생각을 하지 않아 보여주질 못했다. 물론 세종 이전 동양의 언어 전문가들이나 사상가들도 '반절법' 등의 편법을 통해 그 실체를 보여주려고 노력은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진정한 노력이라 보기 어려웠으며 실체를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 바른 소리를 바르게 적을 수 없는 한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주음부호가 개발(1918)되고 로마자가 도입(1926)되는 20세기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용은 세종 당대에 이미 상상의 동물로 판정이 났다. 그러나 상상이 지나치면 마치 사실처럼 착각이 되듯 끊임없이 상상과 관념이 마치 실체처럼 꿈틀대던 동물이었다.[6] 그래서 제주도 안무사는 진지하게 용 사건을 보고했던 것이다. 물론 '정음'을 용에 비유하는 것이 딱 들어맞는 비유일 수는 없다. '정음'은 실체가 있는 것이지만 '용'은 그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음(正音)'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때의 '정음'은 '용'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식의 냉철한 비교는 세종이 정음을 보여 주었기에 가능한 논의이지 그렇지 않으면 용을 정음에, 정음을 용에 비유한들 논리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세종은 소옹의 정음론을 읽고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 천지자연의 소리에 어울리는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고 했는데 왜 문자(한자)로 그들의 소리(중국어)조차 제대로 적을 수 없는 것일까?
> 그렇다면 조선의 소리는 문자(한자)로 더더욱 적을 수 없는데 우리의 말소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적을 수 있단 말인가?
> 우리말과 중국 한자음을 두루두루 잘 적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들 수는 없는가?
> 몽골말도 적고 다른 말도 적을 수 있는 국제 문자로 창제된 파스파 문자의 문제는 무엇인가?
> 바뀌지 않는 소리와 바뀌는 소리를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문자는 없는 것인가?
> 소리가 문자로 되고 문자가 다시 소리로 쉽게 복원되는 문자는 만들 수 없는가?

세종은 음악과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근대 언어학과 탈근대 언어학의 융합적인 언어학 지식과 결합시켜 정음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언제부터 세종이 정음을 연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세종이 47세 때인 1443년 12월(음력)에 이르러서야 그 결과를 정음의 기본 문자인 28자를 통해 알렸다. 모든 소리를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소리나는 원리와 이치를 파악해 그것을 가장 쉽고 간결하게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세종의 정음 문자는 1446년 9월 상한(음력)에 세상에 공표된 뒤, 단 한 사람도 공식적인 반대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지배층과 지식인들에게 수용되었으나 한자를 대체하는 문자가 아닌 보완하는 2류 문자 정도로 여겨졌고 더더욱 더 깊고 치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훈민정음은 다목적용으로 창제되었으므로 한자를 대체할 필요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었지만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온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17세, 18세기,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최석정, 신경준, 정동유, 유희 등 일부 실학자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훈민정음 연구성과를 낸 것은 대단한 것이었으나 그

---

6) 뒤에 제주 안무사는 "노인을 방문하니, 지나간 병진년 8월에 다섯 용이 바닷 속에서 솟아 올라와 네 용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구름과 안개가 자우룩하여 그 머리는 보지 못하였고, 한 용은 해변에 떨어져 금물두(今勿頭)에서 농목악(弄木岳)까지 뭍으로 갔는데, 비바람이 거세게 일더니 역시 하늘로 올라갔다 하옵고, 이것 외에는 전후에 용의 형체를 본 것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런 연구 성과를 한문으로 드러내는 한계를 보였고 더 깊이 이어지질 못했다. 조선 말기에 와서야 주시경이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정음 연구를 이어가려 하였으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39세로 요절하였다. 19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어 그것을 반영한 최현배(1942), 홍기문(1946), 방종현(1948) 등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세종의 정음 언어관에 관한 논의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져 필자가 새로 보탤 논의는 없는 듯하다. 다만 필자는 기존 논의의 핵심을 짚고 그 맥락을 밝혀 정음 언어관의 실체를 좀 더 부각시키고 그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정음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이번 발표에서 집약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 일이다. 다만 정음 언어관에 대해 최초로 자세한 논의를 한 홍기문(1946)과 정음 언어관을 단행본으로 집약한 한태동(1983, 1998/2003)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7)]

필자가 이 글에서 접근하는 관점이나 방법론은 일종의 '통합 언어학'과 '유통 언어관'이라 할 수 있다. 통합언어학은 체계와 보편성 중심의 랑그 지향의 근대언어학과 차이와 다양성, 특수성 중심의 파롤 지향의 탈근대언어학을 통합하는 언어학이다.[8)]

'유통'은 <훈민정음> 해례본(1446) 서문에 나오는 말이다. 세종의 정음 언어관을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말이다.

>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

'유통'은 사람 사이의 소통뿐만 아니라 소리와 문자, 문자와 소리, 소리·문자와 사람 등 관련된 요소들의 자연스러운 상생적인 통함을 의미한다. '유통'의 관점으로 세종의 정음 언어관을 다시 조명하는 것은 일종의 정음의 본질을 최대한 잘 드러내고 정음을 둘러싼 맥락을 통합 또는 융합의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관점과도 일치한다.[9)] '유통'은 소통의 대상과 소통 과정, 그리고 소통의 맥락과 가치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이번 발표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을 밝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훈민정음학회(訓民正音學會)'에서 세종 탄신 617돌(음력 4월 10일, 양력 5월 15일)을 앞두고 '정음(正音)'에 관한 선행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세종의 언어관을 종합 정리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2. '정음'의 개념과 갈래

이 글에서 사용할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구별해 쓰고자 한다.

---

7) 한태동(1983)은 정음의 실체와 이론틀을 <훈민정음>(해례본), <동국정운>, <악학궤범>을 통합 분석한 최초의 발표로서, 이를 단행본인 한태동(1998)으로 출판한 뒤 재편집하여 한태동(2003)로 최종 출판하였다.

8) 글쓴이는 김슬옹(2008)에서 근대적 언어관과 탈근대적 언어관의 융합을 보여준 소쉬르(1916)의 융합적 언어관이 세종 외(1446)의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겨 있음을 논한 바 있다. 이때는 '정음 언어관'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다.

9) 훈민정음에 대한 융합 접근 방법론에 대해서는 백두현(2012)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글 : 근대 이후의 한국어를 적는, 기본 24자로 구성된 한국의 고유 문자.
언문 또는 훈민정음 : 세종(이도)이 창제한 15세기 조선의 말을 적는 기본 28자로 이루어진 조선의 고유 문자.
정음 : 사람의 말소리를 비롯한 자연의 소리를 가장 과학적으로 적을 수 있는, 세종이 창제한 보편 문자.[10)]

물론 이렇게 구별하더라도 세 용어의 뿌리는 같으며, 대부분의 의미와 가치는 공유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한글'과 '언문'은 한국의 특수성과 민족주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용어이지만, '정음'은 언문과 한글의 특수성과 한국 민족주의를 최대한 배제하는 전략을 담은 용어라 할 수 있다. 물론 세종은 한국어의 특수성과 사람 말소리의 보편성을 아울러 '정음'을 통해 이루었지만 맥락에 따라 한국어의 특수성과 인간 언어의 보편성은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11)]

'문자(文字)'라는 일반 용어로 본다면, 문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층위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자1: 말소리를 적는 기호
문자2: 한자
문자3: 각 언어의 구체적인 입말을 적는 개별 글자로 중국어를 적는 한자, 영어알파벳, 아랍문자, 훈민정음/한글 등.
문자4: 자연의 소리를 최대한 잘 적을 수 있는 인류 보편 문자.

'문자4'가 바로 '정음(正音)'이다. 중국어를 적기 위한 한자(漢字)가 동아시아의 보편 문자가 되었듯이, 세종도 동아시아의 표준 표기 체계를 꿈꿔, 조선의 말소리뿐만 아니라 한자음까지 적고 주변 여러 나라의 말까지 적을 수 있는 문자를 설계한 셈이다. 이는 강신항(2003: 50), 최영애(2003: 98)에서 지적했듯이, 파스파 문자가 몽골말뿐만 아니라 한음의 정확한 표기와 여러나라 말을 적기 위한 일종의 국제음성기호와 같은 다목적용으로 설계한 이치를 따른 것이다.

소리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층위의 소리가 있다.

소리1: 모든 자연의 객관적 실체로서의 소리(음향+음성).
소리1_1: 사람 이외의 소리(두루미 소리, 개 짖는 소리, 바람소리)

---

10) 한태동(1983: 130)에서는 "정음은 어느 특정된 나라의 어음이 아니고 언어를 위한 언어로 구성되어 모든 언어의 기틀이 되는 위대한 언어 체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음은 만민의 언어학의 기틀이 될 것이고 자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석연(1993: 168)에서는 "정음을 사용할 '훈민'의 대상이 한국 국민만이 아니었음은,정음을 보편적인 문자로서 온 누리에 편만하게 하고 싶었던 세종의 꿈과 청사진이 원본 밑에 깔려 있는 제자 원리와 창제 의도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는데…"라고 하였고, 박종국(2006: 65)에서는 "정음이라는 이름은 정자나 정문과 같은 뜻을 품고 있는 것으로 중국 글자를 말하는 한자나 그 밖의 다른 나라 글자들보다 상위의 글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세종대왕의 숨은 뜻에 의해 지어진 글자 이름"이라 하였다. 박선우(2009: 143)에서도 "정음이 당대의 음성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창제되었으며 자질성을 포함하여 음성부호로서의 보편성을 가진 체계이었다는 점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11) 훈민정음학회가 주도한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한글 사용 문제도 '한글'이 아닌 '정음'의 관점에서 쌍방향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졌다면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했을 것이다. 물론 훈민정음학회는 그러한 관점에서 시도한 것이다. 비록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만으로도 세종의 정음 언어관을 구체적으로 시도한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소리1_2: 사람의 말소리
소리2: 들리는 소리로 사람의 인지 체계 안에 들어온 소리.
소리2_1: 사람 이외의 소리(두루미 소리, 개 짖는 소리, 바람소리)
소리2_2: 한국인의 말소리
소리2_3: 한국 이외 나라의 말소리(중국, 미국, 일본 등)
소리3: 말하는 소리

우리가 문자로 표기하는 말소리 이외의 자연의 소리는 결국 자연의 소리 그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인지 체계 안에서 사람의 말소리로 바뀐 소리이다. 문제는 그러한 소리를 문자로 나타낼 때 문자 체계에 따라 객관적 실체로서의 소리에 근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음운론이나 문자 상식이 있다면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EBS에서는 2013년 한글날에 방송된 동영상 '위대한 문자-한글의 재발견'에서 이를 간단한 실험을 통해 입증해 보였다. '한국/영어권/중국어권' 학생들을 여러 명씩 동원해 숭실대소리공학연구소를 통해 실험한 것이다.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고 각자가 사용하는 문자로 적어보고 읽어 보는 실험이었는데 한글 사용 학생들만이 모두 적고 서로 일치했다. 또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상고어를 쓰고 읽어보는 실험에서도 한글 표기와 읽기를 한 학생들의 공명 주파수가 원음 발음에 가장 잘 일치했다.[12)]

'정음'의 개념을 짜임새 있게 처음으로 정리한 것은 "홍기문(1946). <正音發達史> 하. 서울신문사 출판국. 44-46쪽"에서였다. 책 제목 자체가 '훈민정음발달사'가 아니라 '정음발달사'라고 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정음'을 '언문'과 더불어 훈민정음을 가리키는 문자의 양대 명칭으로 규정하였다. 정음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훈민-'이 붙었을 뿐 실제 통용되던 명칭은 '정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훈민'이 붙은 것을 이렇게만 보면 너무 가볍게 본 것이다. '훈민-'이 붙었기에 정음의 본질과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고 중국의 소옹이 말하는 '정음'과 다른 본질적 가치가 있다. 훈민(訓民)이 가능한 '정음(正音)'과 그것이 거의 힘든 '正音'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세종의 정음 언어관은 문자의 가치와 창제 취지를 담은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명칭은 일반 명칭인 '언문'에 대비되는 특별 명칭이었다. 특별 명칭이었기에 문자 명칭임에도 그 맥락(배경, 근원)을 그대로 드러내는 전략을 썼다. 문자의 명칭임에도 왜 '-음(音)'으로 끝날까 고민이 불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13)]

홍기문(1946)은 중국과 우리나라 주요 문헌에서 쓰인 '正音'의 용례를 통해 다섯 가지 개념을 뽑아냈다.

12) 실험을 담당한 배명진 교수는 "모든 발성을 하면 반드시 입안에서 공명 울림이 나오고 그 울림의 변화를 가지고 무슨 발음을 정확하게 했는지를 분석했는데 한 글자로 그대로 읽어 들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공명 울림이 정교하게 맞는 걸로 봐서 아프리카 상고어 발음을 정교하게 따라 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소리를 표기하는 데 세상에 어떤 문자보다 한글이 유리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라고 평하였다.

13) 박창원(2005: 44)에서도 "당시 중국어와 다른 조선인의 언어를 위한 문자를 만들고 그것을 '正字'나 '正文'이라 하지 않고, '正音'이라고 한 것은 소리와 문자란 그 이치가 동일한 것이어서, 문자가 소리의 이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의 소산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표 4] 홍기문(1946)에서 정리한 '정음' 개념 갈래

개 념	근거 문헌
정확한 말소리	황극경세서
널리 통용되는 말소리	홍무정운 서
중앙 말소리	칠음략
본래 말소리	운회거요
정확한 소리이자 널리 통용되는 소리	석보상절 서문

이런 관점 아래 "정음은 문자의 본질을 표시하는 이름이요, 언문은 그 용처를 표시하는 이름이다(홍기문: 1946 하권: 46)"라고 개념을 정리하였다. 곧 문자 자체가 성음(聲音)을 표시하는 점에 있어서 '정음'이요, 우리말에 사용되는 점에 있어서는 '언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음'의 의미를 직접 다음과 같이 서술한 석보상절 서문의 의미를 두 가지로 추려냈다.

> 正졍音흠은正졍ᄒᆞᆫ소리니우리나랏마ᄅᆞᆯ正졍히반ᄃᆞ기올히쓰논그릴씨일후믈正졍音흠이라ᄒᆞᄂᆞ니라
> _<석보상절서문>

위 구절을 지금말로 풀어 쓰면 "정음은 바른 소리라는 뜻이니, 우리나라 말을 반듯하고 옳게 쓰는 글이므로 이름을 '정음'이라 한다."라는 것인데, 홍기문은 이러한 정의에 담긴 정음의 뜻은 첫째로 틀린 소리를 바로잡아 정확하게 적는 글자라는 의미와 둘째로 표준어처럼 두루 통용되고 소통되는 소리를 적는 글자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홍기문은 '정음'의 본질을 정확성과 소통성으로 보았다. 그러나 석보상절 서문의 개념은 우리말에 한정된 개념이므로 '정음'의 개념을 총체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한다. [표1]처럼 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다.

3. 세종의 정음 또는 정음관의 형성 과정

소옹의 정음관은 세종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 전후 맥락과 실제 예증 자료는 충분히 밝혀진 터이다. 그러한 선행 연구를 집약하고 일부는 다른 관점으로 비평하며 그 흐름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상형 과학

역설적이라 할지도 모르겠는데 정음 창제의 뿌리는 한자(漢字)다. 정음 창제의 핵심인 상형 원리는 한자에서 비롯되었고 더불어 한자로는 소리를 제대로 적기가 불가능한 절대 모순은 정반대의 소리 문자 창제의 빌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1)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_<세종실록> 1443년 12월 30일자
(2) 字形雖倣古之篆文_<세종실록>1444년 2월 20일 세종 최만리 반대 상소문
(3) 가. 正音二十八字,各象其形而制之_<정음해례 제자해>

나.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文.所以古人因聲制字,以通萬物之情,以載三才之道_<정음해례 정인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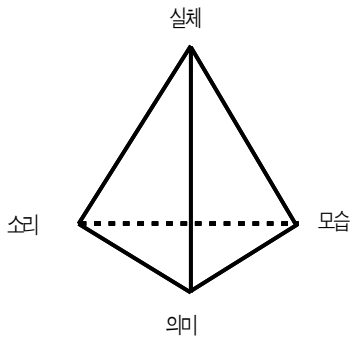
다. 象形而字倣古篆,因聲而音叶七調.三極之義,二氣之妙_<정음해례 정인지서>

(4) 가. 天地絪縕 大化流行 而人生焉 陰陽相軋 氣機交激 而聲生焉. 聲旣生而七音自具. <동국정운서>

나. 是故 包犧畫卦 蒼頡制字 亦皆因其自然之理 以通萬物之情 <동국정운서>

창제와 반포와 관련된 사람들이 직접 쓴 위와 같은 논의의 핵심은 천지연의 소리가 있으면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고 그 문자는 상형 원리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옛 전자나 정음이나 한결같다는 것이다. (1)-(3)의 기록들은 그런 점을 한결같이 직접 서술하고 있고, 동국정운 서문의 (4)를 보면 그런 이치에 따라 창힐이 한자를 소리와 뜻을 담아 만들었고 정음이 이를 이어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태동(2003: 3-10)은 그런 이치를 다음 그림의 예로써 보여 주고 있다.

[표 5] 고대 한자 제자 원리와 실제 예(한태동, 2003: 3-4)

고대 한자 제자 원리	'개(狗)'의 모습과 소리(꺼~을)를 함께 나타낸 상형기호
	

이러한 상형 기호는 개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어 그 의미를 드러냄과 동시에 '꺼-을'이라는 소리의 이미지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상형 기호야말로 천지자연지성 천지자연지문의 이치를 담은 것이고 이 기호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리와 모습을 다시 연상해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발음과 의미를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문자를 만들고자 하는, 한자와 정음이 갖고 있는 공통된 상형 전략으로 보면 '字倣古篆'이란 말의 맥락은 자연스럽게 풀린다.[14] 핵심적 차이는 '한자'는 갑골문으로 흔히 불리는 초기 한자에서는 일부 한자에만 사물 중심으로 상형 원리가 적용된 데 반해, '정음'은 기본 28자 모두 상형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상형 절차가 과학의 이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때의 과학은 실제 과학이면서 언어과학이다.[15]

한자는 단어가 많아지고 뜻이 복잡해짐에 따라 사물을 그대로 상형하는 초기 전략은 의미

14) '자방고전'의 문제는 백두현(2012: 133-134)에서 종합 정리되었듯이, 기존 논의의 대부분은 문자 구성 원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 맥락에서 보듯, 한태동(2003)에서처럼 소리와 문자를 일치시키려는 제자 원리로 보는 것이 더 옳다.

15) 세종대의 과학 수준은 당대 최고였다(김일권 2007 참조). 천문과학과 훈민정음의 상관 관계는 반재원(2001) 참조.

가 없게 되었다. 실제로 지금 한자는 상형 문자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1차적인 상형문자에 멀어진 문자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문자 전반에 걸쳐 상형 원리를 적용한 문자는 정음밖에 없다. 모든 사물과 대상을 상형하고자 하는 한자의 상형 전략은 소리 과학과 기하학의 원리를 도입한 세종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 상형한 것이 1차적인 상형 과학 전략이었고, 자음과 모음에 서로 다른 상형 전략을 적용한 것은 2차적인 상형 과학 전략이었다.

초성 자음의 경우 핵심 문자소(ㄱ ㄴ ㅁ ㅅ ㅇ)를 발음 기관과 발음 작용을 그대로 상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간결한 직선과 원으로 상형하고 다른 문자를 유기적 체계를 이루게 하는 철저한 상형 과학을 적용해 성공적으로 명실상부한 상형 문자를 만들었다. 소리나는 기관을 상형함으로써 소리를 그대로 담아내려는 "천지자연지문(天地自然之文)" 전략에도 성공하였다. 모음의 문자소(ㆍㅡㅣ)는 아예 천지자연의 세 요소를 상형하고 음양의 상징물(땅, 하늘)을 통해 모음조화의 우리말 특성까지 반영하여 역시 천지자연의 소리문자 전략을 이루었다.

'한자'는 일부 문자에서는 한자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로는 상형이 아니지만, '정음'은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가 상형인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음 문자를 구현하고자 하는 세종의 치밀하고도 놀라운 전략을 보게 된다. 발음 나는 원리를 본뜸으로써 상형의 부담도 줄이고 그 효율성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형 원리는 실증성과 관찰을 바탕으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과학 절차, 곧 상형 과학이었다.

한태동(2003: 2)에서는 '정음'을 지은 목표는 "쉬운 한글로 복잡한 한자나 풀이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글자의 모습과 소리가 이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본연의 관계를 되찾아 주어 만물의 속정을(-情) 소통하는 소임을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고대에는 오히려 발음과 의미를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제자(製字)를 하였다고 보았다. 김석연(1993)에서는 이러한 상형 과학이 '정음'의 핵심이라는 의미에서 '정음'을 "인간의 소리를 그 발음 기관에서 소리를 생산하는 조음 구조를 상형·시각화하여 글자로 만든 일과 동일 발음 부위 안에서 생산된 소리가 점층적으로 크고 약하게 들리는 변별적 자질까지도 반영시킨 포괄적 명칭"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세종의 상형 전략은 말소리의 분석에서 문자에 이르기까지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정음을 만들어낸 핵심 원리가 되었다.[16]

2) 음률 배치 전략

정음을 구현하기 위해 음악 연구와 그 적용은 필수였다. 음악에서 소리와 음표의 필연적 관계와 그런 음표를 통해 다양한 소리를 빚어내는 이치는 정음의 이치와 같기 때문이다. 더욱이음악은 바른 세상 바른 정치의 표상이자 도구였다.

세종이 1430년(세종 12년)에 펴낸 '아악보' 서문에서 정인지가 썼듯이 음악은 성인(聖人)

16) 김주원(2013: 206)에서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발음기관을 본뜬 것이므로 전 인류적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였다. 알렉산더 멜빌 벨(Alexander Melville Bell)이 세종의 업적을 모른 상태에서 1867년에 펴낸 《보이는 음성: 보편 알파벳 과학》(Visible Speech: The science of Universal Alphabetics)이란 책에서 발음기관과 발음 작용을 상형한 문자야말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면서 실제 상형 부호를 보였지만 그것이 정음처럼 상형 과학으로 이어지진 못해 더 이상 발전을 못한 듯하다.

이 성정(性情)을 기르며, 신과 사람을 조화롭게 하며, 하늘과 땅을 자연스럽게 하며, 음양을 조화시키는 방법이다.[17] 악학궤범 서문에서도 “음악이란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붙인 것이요, 허(虛)에서 발하여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혈맥을 뛰게 하고 정신을 유통케 하는 것이다.”[18]라고 하였다.

곧 음악은 천지자연의 조화,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소옹의 정음관에서는 바로 바른 말소리와 바른 문자도 이런 음악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정음론에서는 자음과 모음을 철저히 분리할 수 없는 중국 성운학의 한계로 그러한 음악 원리를 철저히 이루지 못한 데 반해, 세종은 정음을 통해 그런 점을 좀 더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다.

세종 초에 들어온 <성리대전>에 나오는 음악이론서인 ‘율려신서’는 다음 기록에서 보듯이 조선의 음악연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옵서 특별히 생각을 기울이시와 선덕(宣德) 경술년 가을에 경연(經筵)에서 채씨(蔡氏)의 <율려신서(律呂新書)>를 공부하시면서, 그 법도가 매우 정밀하며 높고 낮은 것이 질서가 있음에 감탄하시와 음률을 제정하실 생각을 가지셨으나, 다만 황종(黃鍾)을 급작히 구하기가 어려웠으므로 그 문제를 중대하게 여기고 있었다._세종 12년(1430) 윤12월 1일자/조선왕조실록 온라인판 번역

율려신서를 지은 중국의 천재 음악 이론가 채원정(蔡元定, 1135~1198)은 음악을 성리학과 과학 이론으로 풀어냈다. 세종과 박연(朴堧, 1378-1458)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아예 우리식 악기를 제정하여 우리식 음악 이론을 세워 훈민정음에 적용하였다.[19] 절대 음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음률과 화음을 만들어내는 이치를 정음에 그대로 적용하여 절대 음가를 나타나는 정음을 만든 것이다.

고대사회에서 음률은 천지자연의 흐름을 측정해 보여주는 것이어서 우주의 흐름을 보여주는 ‘역(曆)’과 변화의 이치를 보여주는 ‘역(易)’과 더불어 3대 축에 해당된다(한태동, 2003: 227). 또한 표준음을 제정하고 표준 악기를 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도량형을 제정하였으므로 음악은 과학과 생활의 바탕이 되기도 했다.

세종의 음악 연구는 박연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런 흐름은 박연이 올린 각종 상소와 이를 모아 놓은 <난계유고>, 세종실록의 관련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20] 더욱이 세종 당대의 음악 이론을 자세히 기술한 성종 때의 <악학궤범>이 있어 훈민정음 제자해의 음악 관련 기술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고, 한태동(1983, 2003)은 이를 당대의 이론과 현대 과학의 실증적 연구를 종합해 입증한 업적이다.

---

17) 樂者 聖人所以養性情 和神人 順天地 調陰陽之道也._세종 12년(1430) 윤 12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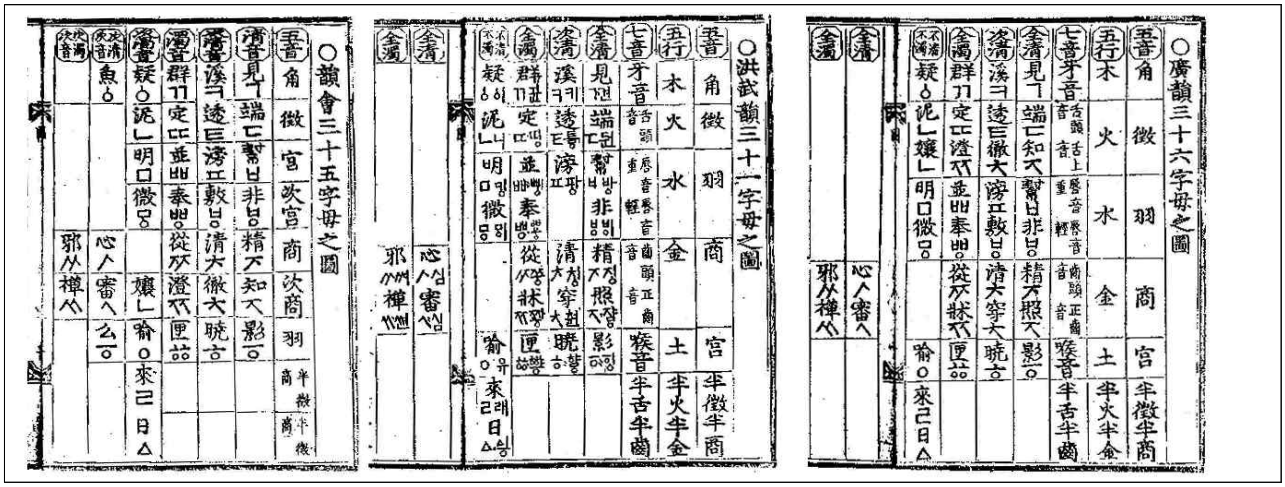
18) 신역 악학궤범_국립국악원 2000, 이혜구, 31쪽.

19) 송 나라 채원정의 저술이 깊이 율려(律呂)의 근본을 얻었으나, 탄법(彈法)과 지법(指法)이 성(聲)과 율(律)에 맞게 펴지 못하였으니, 이는 마치 호미와 쟁기는 있지만 갈고 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다. 이로써 보면 악(樂)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악(樂)은 저절로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 허물어지는 것이다._악학궤범 서문/신역 악학궤범_국립국악원 2000, 이혜구.

20) 그간 박연의 훈민정음 관련 업적은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 아마도 훈민정음 해례본 저술 명단에 박연이 없다 보니 그런 듯하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박연의 역할은 해례본 공저자 못지 않다고 본다. 박희민(2012)은 박연의 훈민정음 관련 업적을 최초로 조명한 단행본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자체를 세종이 아니라 박연이 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훈민정음은 음악 지식과 연구만으로 이루어진 문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채원정의 ‘율려신서’에서는 자음과 모음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 이론을 적용했던 것을,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철저히 자음(초성)과 모음(중성)을 철저히 분리하여 음성 과학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사진] 최세진의 ‘사성통해’ 범례의 정음 표기(운회, 홍무정운과 광운 자모지도)



[표 3] 훈민정음과 각종 운서의 오음 배치 비교

구 분	궁	상	각	치	우	지은이와 출처
廣韻三十六字母之圖	후음	치음	아음	설음	순음	수나라 육법언(陸法言), 광운
洪武正韻三十一字母之圖	후음	치음	아음	설음	순음	명나라, ‘홍무정운(洪武正韻)’
三十六字母之圖	후음	치음	아음	설음	순음	조선 영조, 신경준의 ‘훈민정음도해’
初聲二十五母之圖	후음	치음	아음	설음	순음	조선 순조, 유희의 ‘언문지’
韻會三十五字母之圖	순음	치음	아음	설음	후음	송나라 황공소(黃公紹), ‘운회자모도’
훈민정음 초성 23자모	순음	치음	아음	설음	후음	세종 외,

대체로 중국의 운서에서는 ‘후음’을 ‘궁’으로 하고 ‘순음’을 ‘우’로 정하였는데, 훈민정음에서는 그와 반대로 ‘순음’(ㅁ)을 ‘궁’으로 하고 ‘후음’(ㅇ)을 ‘우’로 정하였다. 한태동(1998 : 41)에서는 이렇게 중국의 대다수 운서와 다른 것은 악리에 따라서 실제 음정을 맞춘 것이라고 하였다. 최종민(2013: 65, 주석 10)에서의 지적처럼 송나라 황공소가 지은 ‘운회삼십오자모도’만 중국 다른 운서와는 다른 측면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황공소의 ‘운회’ 자모도는 원나라 때 편찬된 <몽고운략>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 본래 중국 운서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최세진이 ‘사성통해’ 범례에서 그 내력을 밝힌 바 있다.

> 황공소(黃公紹)가 <韻會>를 지을 때 글자의 어음 역시 蒙韻에 따랐지만, 역시 몽고 글자에서 하나의 음을 두 가지 글자로 표기하는 잘못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분류음의 방식은 취하지 않는다. 오직 주해(注解)에 있어서만큼은 毛씨(<禮部韻略>을 지은 毛晃)의 잘못을 바로잡고 여러 학자들의 저서를 통해 더욱 상세하게 풀이하였으므로, 이제 《通解》를 편찬함에 있어서 역시 《韻會》의 주해를 취해 그 뜻을 풀이하였다._ 번역, 주성일(2009). <사성통

해> 범례고 1. 中國文學硏究 38집. 韓國中文學會.

사실 중국의 운서든 조선의 운서든 운서는 시기별로 끊임없이 편찬되었고, 그 내용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이런 내력에 대해서는 <고금운회거요>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21]

聲韻之學 其傳久失 韻書起於江左 譌舛相承 千有餘年 莫之適正 近司馬文政公 作切韻 始依七音韻 以牙舌脣齒喉 半舌 半齒 定七音之聲 以禮記月令 四時定 角徵宮商羽 半商徵 半徵商之次 又以三十六字母定 每音淸濁之等 然後 天下學士 始知聲音之正 今韻所編 重加訂定 如公韻 公字定 爲角淸音 後皆倣此_<古今韻會擧要> 公字의 注

곧 전해지던 성운학이 많이 바뀌어 운서가 잘못되고 어긋나게 이어 온 지 천년이 조금 넘었는데, 성운학에 가장 가까운 절운(切韻)은 사마문정공(司馬文正公), 곧 사마공이 지었다는 것이다.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은 절운지장도를 지은 사람이며, 아설순치후・반설과 반치의 칠음(七音)에 따라 성모를 정하였고, 예기월령(禮記月令)에서 사시(四時)를 정할 때 사용한 각(角)・치(徵)・궁(宮)・상(商)・우(羽)・반상치(半商徵)와 반치상(半徵商)에 따라 음(音)을 청탁의 등위(等位)를 두어 36자모를 만들었으며, 그 이후에야 세상의 학사들이 성음(聲音)의 바른 것, 곧 정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운서의 맥락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정음'을 알게 되었다는 구절은 기존 운서의 발달이나 정음론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진보를 의미함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정음'을 제대로 보고자 하는 이들의 꿈은 15세기 조선에서 만든 운서 <동국정운>(1446)과 <홍무정운역훈>(1455)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기존의 동양의 음악이론과 성음 이론을 철저히 분석하여 실제 그런 문자를 만든 것이다.

3) 민본주의 교화와 소통 전략

세종의 정음관의 핵심에는 정음 사용자의 주체 문제가 있다. 중국 고대의 정음관이나 소옹의 정음 이론에는 정작 정음(正音)을 누가 왜 사용하는가에 대한 주체 문제가 없다. 천지자연의 소리와 문자 논의는 풍성하지만, 정작 그 소리와 문자를 사용하는 주체 논의가 없는 것이다. 김슬옹(2008)에서는 소쉬르의 언어학과 세종의 언어학의 핵심 차이를 주체로 논의한 적이 있다.

물론 성리학은 사람의 도리를 다루는 학문이므로 당연히 다음과 같이 주체 문제를 다루고 있다.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脩道之謂敎_중용 첫머리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요 그러한 본성을 따르는 것이 도이고 그러한 도를 닦는 것이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하늘의 이치를 따르고 실천할 때 진정한 사람으로서

21) 운서 공부는 박영규 선생님과의 세미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의 구실을 다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용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누구나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없는 신분제에 따르른 것도 본성이라고 본 시대적 한계성은 있으나 무엇이 인간의 바른 길인가를 보여 주고 있다. 소옹의 정음관도 이런 천지자연 본성론에 따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언어를 통한 소통의 문제 등은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교화와 소통 문제로 정음을 꿈꾸게 되었고 그 꿈을 28자를 통해 이루었다. 세종은 다목적용으로 정음을 만들기는 하였으나 그 근본 출발은 책을 통해 백성들을 가르치고 책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나누고 싶은 데서 출발하였다. 한문이나 이두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어 정음을 창제하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세종 때도 신분제의 한계가 있었으므로 책을 통한 소통 문제를 오늘날의 소통 차원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분의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사람으로서의 섬세한 감성 표현까지 가능한, 신분과 권력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듦으로써 시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정 계층만이 문자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주체도 마음대로 감성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상황과 노비까지도 문자 사용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감성 표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상황과는 차원과 근본이 다른 것이다.

'훈민정음'의 1차적 사용 주체는 조선의 백성이었으나 보편 문자로서의 '정음'을 주목하면, 김석연(1993: 168)에서처럼 그 주체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곧 김석연(1993)은 정음을 사용할 '훈민'의 대상이 한국 국민만이 아니었음은, 정음을 보편적인 문자로서 온 누리에 편만하게 하고 싶었던 세종의 꿈과 청사진이 원본 밑에 깔려 있는 제자 원리와 창제 의도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세종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바른 문자를 통한 소통과 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신분제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의 소통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표현조차 못하는 상황과 표현이 가능한 상황과는 역시 차원이 다르다. 세종은 1446년에 발표한 세종 서문과 그 이전에 신하들과의 토론이나 회의 등을 통해 종합해보면, 하층민이 하고 싶은 말(글)을 한문으로 인해 하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을 문제 삼고 있으며 그런 까닭으로 새 문자를 창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음'의 진정한 가치가 여기에 있다.

4. 세종 '정음'의 주요 배경과 사상

세종이 정음 창제에 성공한 주요 배경과 사상을 짚어보기로 한다.

1)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언어는 중층적(重層的)이다. 근대 언어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소쉬르(1916)는 랑그와 파롤이라는 이분법을 통해 언어의 복합적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론화하였다. 그러나 소쉬르가 랑그와 파롤을 배타적으로 보아 이분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반면에, 세종은 융합적인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세종이 음성 기호로서의 보편 문자 기능과 자연어로서의 특수성을 아울러 구현한 것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철저히 이루었음을 보여 준다.

현대 언어학은 50년 이상을 소쉬르의 이분법을 확대 재생산하였고, 최근에 와서야 융합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세종은 이미 15세기에 그런 흐름을 보여준 것이다. 다음 표는 소쉬르에서 촉발된 현대 언어학의 양대 산맥의 흐름을 분석한 것이다.

[표 4] 언어학의 '순수-응용' 구도에 따른 속성과 층위

갈래와 층위	순수 언어학	겹침 분야	응용 언어학
속성	.랑그 지향 .체계성 .정확성 .규칙성(예외 배제) .동질성	체계 지향(←응용언어학) 외연 확장(순수언어학→)	파롤 존중 .역동성 .적절성 .응용성 .예외 인정 .차이(다양성)
배경 이론	소쉬르식 근대 언어학 변형생성문법		소쉬르식 탈근대 언어학 일상 언어학(오스틴, 설) 후기 분석주의 철학(비트겐슈타인)
대표적인 학문 분야	문법론	거시 화용론 거시 사회언어학 의미론 순수 문법 교육 전산 언어학(변형생성문법 응용)	미시 화용론, 미시 사회언어학 이중 언어 교육
언어 단위	1. 음운, 형태소, 문장 등 문장 이하 단위가 연구 대상, 목적 2. 담화나 이야기는 연구 대상이 아니라 체계적 연구를 위한 도구(자료)나 수단	1. 언어의 분절적 단위보다는 담화나 이야기 등의 통합적 언어 행위 존중 2. 음운, 형태소, 문장 등의 분절적 언어는 사용 맥락을 따지는 수단이나 재료	
맥락 1	탈맥락	맥락	
맥락 2(담론)	메타 맥락(왜 체계인가: 체계를 존중하되 맥락 따짐)	왜 겹침을 존중하는가	왜 역동성인가
통합 언어학 1		통합 언어학 1	
통합 언어학 2(담론학)	통합 언어학 2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세종은 순수언어학적 접근과 응용언어학적 접근 모두를 융합한 것이다.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화시키는 전략은 <훈민정음>(1446)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에 자세히 나와 있다.

(1) 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所以古人因聲制字, 以通萬物之情以載三才之道, 而後世不能易也.

(2) 가. 然四方風土區別,聲氣亦隨而異焉. 蓋外國之語,有其聲而無其字. 假中國之字以通其用,是猶枘鑿之鉏鋙也,豈能達而無礙乎. 要皆各隨所處而安,不可强之使同也.

나. 但方言俚語,不與之同

(1)에서는 문자의 보편성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자연의 말소리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적는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옛 사람들도 천지자연의 말소리에 맞는 천지자연의 글자를 만들었고, 그 글자에 만물의 뜻을 담고 천하의 이치를 담았기에 후세 사람들

이 쉽게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말소리와 문자를 일치하려는 말소리와 문자의 유기적 관계라는 보편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가)에서는 말소리와 문자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는 곳이 다르면 말소리 또한 다르기 마련인데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대개 그 말소리에 맞는 글자가 없다. 그래서 중국 글자를 빌려 쓰지만 이게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끼우는 격이니 소통하는데 문제가 많다. 그렇다면 각 지역에 맞는 문자를 쓸 일이지 한자 같은 문자를 빌려 억지로 쓰게 할 필요는 없다. 즉 (2나)처럼 각 지역의 방언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보편성과 특수성을 융합한 대표적인 보기는 초성자와 종성자에 인식과 문자화이다. 정음은 '초성부용초성'에서 보여 주듯 변이음을 정확히 인식하여 초성자와 종성자를 같은 모양으로 디자인하여 간결한 문자로 말소리를 정확히 기술할 수 있게 하였다. 순경음 비읍(ㅱ)과 같이 모국어 화자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인식되지 않는 변이음까지 표기 가능한 문자를 만들면서도 종성자처럼 변이음을 실제 기본 문자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표기와 소통의 효율성을 이루었다.

정음은 사성을 나타내는 가점법(加點法)과 같은 초분절음소 표기 체계를 통해 말소리의 특수성을 보편적 체계로 드러내는 최대의 성과를 보여 주었다. 정우영(2013)에서의 지적처럼 이는 세계 문자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독특한 것일이다. 이에 대해 정우영(2005)은 "일반적으로 분절음소만 적는 일반 문자와는 달리 '훈민정음' 표기법은 초분절음소를 문자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화된 기록을 현실 발화로 재현할 수 있게끔 되었다."고 기술하고, 같은 방식으로 당시 국어를 표기한 15세기 국어 문헌은 '문자로 기록된 소리책'이라 평가하였다.

이렇게 말소리와 문자 기호의 유통이 자유로운 것은 말소리의 보편적 규칙(랑그)에 따라 문자를 창제하여 다양한 말소리(파롤)를 적을 수 있는 문자 체계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곧 세종의 정음은 소쉬르가 랑그를 통해 드러낸 체계와 과학, 공통성으로서의 보편성과 들뢰즈가 강조한 차이로서의 보편성을 아울러 구현한 문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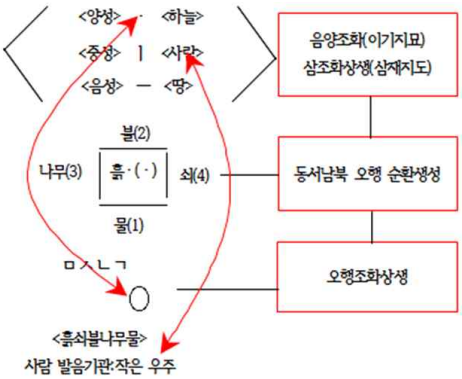
2) 자연주의 언어관과 과학주의 언어관의 융합

세종 정음 언어관의 가장 큰 사상은 자연주의 사상이다.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담아 천지자연의 이치를 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곧 "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文.所以古人因聲制字,以通萬物之情,以載三才之道"라는 정인지 서문에 이런 사상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천지자연의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담아 소리와 문자가 자유롭게 '유통'되게 하다 보니 과학의 문자가 되었고 결국 자연주의 언어관과 과학주의 언어관이 융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종은 다음 그림에서 보듯 모음소의 대표인 아래아(ㆍ)부터 자음소의 대표격인 'ㅇ'까지 동양의 전통적인 유기적 철학을 부여하였다. 거시적인 하늘과 미시적인 사람의 목까지 음양오행의 논리를 적용해 천지자연의 질서를 반영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동양의 전통에 따른 보편성을 최대로 이루고자 하는 과정이었다.

동양의 전통적 음양오행론을 철저히 구현하면서도 그것을 철저히 현대 언어 과학으로 융합하고 있다.[22] 'ㆍ(아래아)'의 경우 문자 측면에서도 모음의 중심이므로 천지자연의 중심의

22) 훈민정음의 과학성에 대해서는 "김슬옹(2012가). 한글 우수성, 과학성, 독창성에 대한 통합 연구. <문법교육> 16호. 문법교육학회. 37-82쪽."에서 논의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줄인다.



[그림2] 음양 오행론

하늘의 의미를 부여했고 가장 기본적인 모음의 특성(실체 과학)을 부여했다. 아래아가 현대 표준어에서는 배제되고 변화의 양상이 복잡해 음소냐 아니냐의 논쟁까지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장 원초적인 발음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한태동(2003 : 70)에서는 아래아(·) 소리는 신생아 때부터 제일 흔히 쓰는 음으로 구강의 모든 근육과 목젖까지 이완시킨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이고, 말을 구사하기 이전에 분화되지 않은 제일 자연스러운 소리로 유아들이 [엄마]라 발음할 때 내는 [ㅇㅁ] 소리에 들어 있는 음으로 보았다.

/ㅣ/의 경우도 아이들이 젖을 빨 때 내는 소리로 혀끝 뒷부분이 아랫니에 닿으면서 입을 살짝 벌리면서 /에/, /애/보다 혀가 더 높이 올라가면서 나오니 고모음인데, 혀 앞에서 나오는 전설모음을 대표하는 기본 모음 역할을 한다. /ㅡ/는 신생아가 용변을 볼 때 내는 소리로 아랫니에 닿아 있던 혀를 떼고 '으-' 하고 내면 혀가 약간 내려오면서 혀 뒤쪽으로 발음이 나오는 고모음 소리로 혀 뒤에서 발음이 나므로, 후설모음의 대표하는 기본 모음이다.

두 모음 모두 입술 모양은 평평하므로 평순모음이다. /이/와 같은 위치에서 입술모양이 동그래지는 /위/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금방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는 혀의 앞뒤로 보면 전설모음, 혀의 높이로 보면 고모음, 입술 모양으로 보면 평순 모음이며, /위/는 /이/와 같이 전설 고모음이지만 입술모양과 동그랗게 바뀌는 원순모음이 된다. /으/는 /우/와 비교해 보면 두 모음은 모두 같은 위치(고모음, 전설 모음)에서 발음이 되지만 입술 모양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으/는 후설 고모음이면서 평순모음, /우/는 후설 고모음이면서 원순 모음이다. 결국 /이/와 /으/ 발음은 다양한 모음의 기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와 /으/를 모음자를 만드는 기본 모음 음운으로 삼고, 각각을 나타내는 'ㅣ', 'ㅡ'를 원형 문자로 삼았으며, 'ㅣ'는 서 있는 사람의 상징적 의미를, 'ㅡ' 는 평평한 땅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으/는 혀 뒤쪽에서 나오는 약한 발음이라 '쓰+어=써'에서와 같이 탈락이 잘 된다. 이런 발음 현상은 인류 보편 현상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문자로 형상화시키지 못했다. 특히나 로마자권 사람들은 /ㅡ/ 발음을 거의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는 독립된 문자도 없다. 그러나 한국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ㅡ/ 발음이 섬세하게 발달된 편이고 세종은 이를 정확히 포착하여 문자로 형상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모음의 기본 특성에 대한 과학적 관찰과 천지자연의 삼요소인 삼재와 연결시켜 정음으로서의 실체와 가치를 극대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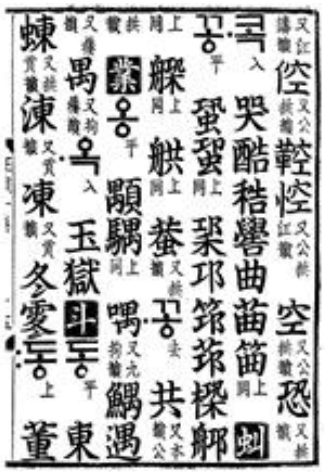
자음의 경우에는 'ㅇ'가 문자 차원에서도 큰 우주의 중심인 하늘과 작은 우주의 중심이니 사람, 그 말소리의 중심인 목을 본떴고 그런 문자의 기본 특성을 말소리로도 갖고 있다. 훈

민정음 제자해서는 “대저 사람의 말소리가 있는 것도 그 근본은 오행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목구멍 소리를 설명하고 있다. 목구멍은 깊숙하고 물기가 있으니 ‘물’에 해당되며 소리가 비고 거침 없음은 물이 투명하고 밝아 잘 흐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한태동(2003: 174)에서는 ‘·’의 음관 상태는 관련된 근육을 이완시켜 제일 자연스러운 본연의 상태를 뜻하며 자음 ‘ㅇ’ 의 음관 상태도 ‘·’와 같은 것으로 구조적으로 같은 공명 소리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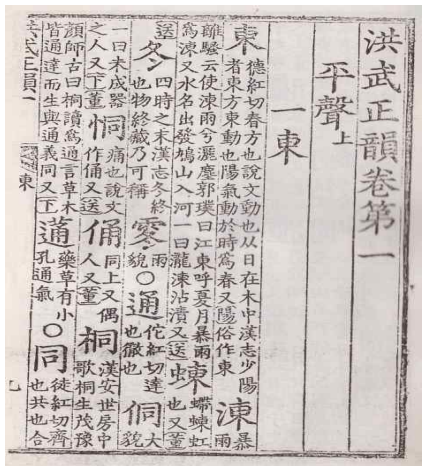
이렇게 자연스런 말소리 이치를 문자에 반영하다 보니 정인지서에서는 “故人之聲音, 皆有陰陽之理, 顧人不察矣. 正音之作, 初非智營而力索, 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라고 하여 사람의 성음(聲音)도 모두 음·양의 이치가 있는 것인데, 스스로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살피지 못했을 뿐이라고 하였다.

세종의 정음관은 역사적 자연주의와 과학적 생성주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대의 성운학에 대한 역사적 업적을 수용하면서도, 또한 전혀 이질적인 창조적인 정음을 창제하였기 때문이다.[23] 소옹의 논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좇았다면 새로운 정음 창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세종은 선행 이론과 역사적 흐름을 존중하되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세종과 집현전 음운학자들은 <훈민정음(1446)>해례본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화의 문자 표준을 동국의 문자 표준으로 가져오는 담대한 정음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동국정운>(1448)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천 년 이상을 해결 못한 운서의 발음 표기를 과감하게 입증해 보이는 것이 <홍무정운역훈>(1455)이다.



동국정운(1448)



홍무정운(1375)



홍무정운역훈(1455)

<동국정운>과 <홍무정운역훈>은 한자와 한문이 갖고 있는 문어로서의 동아시아의 보편성을 또 다른 보편 문자인 정음으로 그 한계를 극복한 것이었다. 황제의 나라 중국이 보여주지 못한 정음의 실체를 눈으로 보게 된 그 기쁨을 신숙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23) 이런 의미에서 심소희(2013: 383)는 세종의 정음 업적을 “결국 우리는 외래 사상인 정음관을 주체적으로 섭취하여 창조적으로 우리의 토양에 맞게 변용하고 또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는 도구로 활용하였으므로, 결국 정음관은 우리 민족의 사상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我世宗大王天縱之聖.高明博達.無所不至.悉究聲韻源委.而斟酌裁定之.使七音四聲.一經一緯.竟歸于正.吾東方千百載所未知者.可不浹旬而學.苟能沈潛反復.有得乎是.則聲韻之學.豈難精哉.古人謂梵音行於中國.而吾夫子之經.不能過跋提河者.以字不以聲也.夫有聲乃有字.寧有無聲之字耶.今以訓民正音譯之.聲與韻諧.不待音和, 類隔, 正切, 回切之繁且勞.而擧口得音.不差毫釐.亦何患乎風土之不同哉_홍무정운역훈 서문

…우리 세종대왕께서 타고나신 성인으로 고명하고 통달하여 지극하지 아니한 바 없으시어 성운(聲韻)의 처음과 끝을 모조리 연구하여 짐작하고 제정해서 칠운·사성과 일경(一經)·일위(一緯)로 하여금 마침내 바른 데로 돌아오게 하였으니, 우리 동방 천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열흘이 못 가서 배울 수 있으며, 진실로 깊이 생각하고 되풀이하여 이를 해득하면 성운학이 어찌 정밀하기 어렵겠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범어가 중국에 행해지고 있지만, 공자의 경전이 인도로 가지 못한 것은 문자 때문이지, 소리 때문이 아니다.' 하였다. 대개 소리가 있으면 글자가 있는 법이니 어찌 소리 없는 글자가 있겠는가. 지금 훈민정음으로써 번역하여 소리가 운(韻)과 더불어 고르게 되면 음화(音和)·유격(類隔)·정절(正切)·회절(回切) 따위의 번거롭고 또 수고로울 필요가 없이 입만 열면 음을 얻어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니, 어찌 풍토가 똑같지 아니함을 걱정하겠는가. 번역: 고전번역원

이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었는지 제일 먼저 알아차린 이들은 최만리를 비롯한 갑자상소 주역들이었다.

우리 조선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 지성스럽게 대국을 섬기어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를 따랐습니다. 이제 문자(한문)도 같고 법과 제도도 같은 시기에 언문을 창제하신 것은 보고 듣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설혹 말하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된 글자가 아니라." 하지만, 글자의 형상이 비록 옛날의 전자를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치는 것은 모두 옛것에 반대되니 사실 근거가 없사옵니다. 만일 이 사실이 중국에라도 흘러들어 가서 혹시라도 비난하여 말하는 자가 있사오면 어찌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사오리까.(我朝自祖宗以來, 至誠事大, 一遵華制, 今當同文同軌之時, 創作諺文, 有駭觀聽。 儻曰諺文皆本古字, 非新字也, 則字形雖倣古之篆文, 用音合字, 盡反於古, 實無所據。 若流中國, 或有非議之者, 豈不有愧於事大慕 華)

갑자 상소는 중국이 천 년 이상을 해결하지 못한 한자음 적기를 해결한 언문의 신묘함에 놀라면서도 정작 그 한자음 적기보다는 중국이 해결 못한 것을 조선이 해결한 '과도함'이 지나치다고 세종의 문자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알려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으나 그 두려움은 자기검열식 두려움일 것이다.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오랑캐 나라가 오랑캐 문자를 갖는 것은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니다. '정음'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중국의 시각으로 보면 오랑캐 나라의 오랑캐 문자일 뿐이다. 실제 훈민정음 반포 이후에 중국의 공식 반응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중국의 지배층이나 음운학자들은 용 보기를 간절히 원했으면서도 정작 용이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나타나서인지 철저히 무시한 셈이다.

융합적 정음관은 시간으로 보면 고대의 정음관을 15세기에 맞게 변용하고 시간 변화에 관계없이 응응 확대 사용이 가능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자연주의 언어관과 과학생성주의 언어관을 융합하여 정음의 창조성을 높였다.

5.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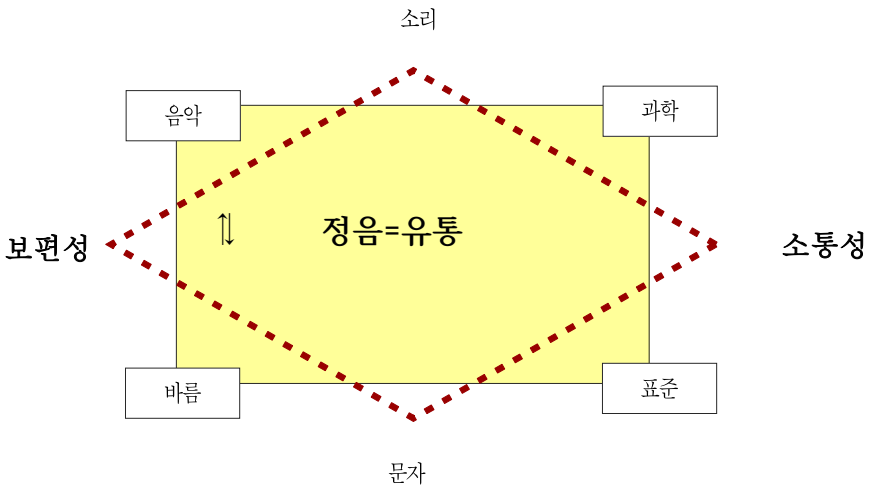
중국의 정음관은 근본적으로 소리를 기록하는 데 집중하여 문자가 다시 소리로 돌아오는 이치를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다. 또한 소리와 문자의 주체인 사람 사이의 소통도 소홀히 하였다. 진정한 '정음'이 아니었다. 세종의 훈민정음에 이르러서야 소리와 문자가 제대로 '유통'되고 또한 천지자연과 사람과 유통되는 그런 정음다운 정음으로 이루어지는 사상과 이론이 체계화되었고 문자로 제대로 구현되었다.

세종(世宗)은 정음을 통해 소리와 문자를 유통하게 함으로써 사람 사이의 유통이 가능하게 하였고, 또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유통이 되는 정음 세상을 열었다. 이번 발표에서 세종의 정음관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세종 정음 또는 정음관의 핵심 형성 과정을 상형 과학과 음률 배치, 소통 주체 측면에서 다시 정리해 보았으며, 그 배경 원리로 융합적 관점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융합 원리와 자연주의 철학과 과학 생성주의 융합 원리를 통해 다시 정음관의 실체를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은 소리와 문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각 자소의 절대 음가를 구현하면서도 그것이 빚어내는 다양한 말소리의 역동성도 함께 담아냄으로써 정음의 '바름'이 지향해야 하는 바른 세상의 길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제시한 셈이다.

세종 정음의 실체는 결국 소리와 문자의 보편성과 사람 사이의 소통성을 이룬 것이며 이를 음악과 과학 방법론으로 이루어 바름과 표준이 가능하게 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은 결국 모든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상생적 통함인 '유통' 정신에 있다.

[그림] '정음' 특성 구성도



참고문헌

신경준(1750, 영조 26). <훈민정음운해(訓民正音韻解)>(영인본), 고령신씨대종회.

유희(1824, 순조 24). <언문지(諺文志)>(영인본). 한양대학교부설국학연구원.

아세아문화사 편(1973). 洪武正韻(영인본). 亞細亞文化社.

胡廣 편(1994). 性理大全(영인본). 보경문화사.

이혜구 역주(2000). <신역악학궤범>, <樂學軌範>(영인본). 국립국악원.

강신항(1987/2003).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강신항(2003), '正音'에 대하여, <한국어연구> 1, 한국어연구회, 7-25쪽.

권은선(2007). <洪武正韻譯訓> 중국어 성모의 정·속음 대응 양상. <韓中言語文化硏究> 12집. 韓國現代中國硏究會. 39-65쪽.

권재선(1992). <한글 연구(Ⅰ)>. 우골탑.

김동준(2012). 崔錫鼎의 語文觀과 文明認識 : <經世正韻五贊>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2집. 월인. 307-338쪽.

김무림(1991). 洪武正韻譯訓의 音韻論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병훈2004). <율려와 동양사상>. 예문서원.

김석득(2009). <우리말 연구사>. 태학사.

김석연(1993). 정음 사상의 재조명과 부흥. <한글> 219. 한글학회. 155-217쪽.

김석연(1997). 훈민정음의 음성과학적・생성적 보편성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의 세계화 시대는 훈민정음의 재조명과 부흥책을 촉구한다. <교육한글> 10. 한글학회. 181-207쪽.

김슬옹(2008). 세종과 소쉬르의 통합언어학적 비교 연구. <사회언어학> 16권 1호. 1-23쪽. 한국사회언어학회. [김슬옹(2010)에 404~439쪽에 재수록].

김슬옹(2010),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 지식산업사.

김슬옹(2010). 2007년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 쟁점에 따른 '맥락' 범주 문제. <[한]국어교육에서 통합적 문법 교육> 한국문법교육학회·고려대 국어소통능력연구센터 공동학술대회(한국문법교육학회 12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문법교육학회.

김슬옹(2010).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맥락'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슬옹(2012)로 보완 출판]

김슬옹(2010). 세종의 '훈민정음' 관점으로 본 외솔의 한글운동론. <나라사랑> 118집. 외솔회. 152-172쪽.

김슬옹(2012가). 한글 우수성, 과학성, 독창성에 대한 통합 연구. <문법교육> 16호. 문법교육학회. 37-82쪽.

김슬옹(2012나). <맥락으로 통합되는 국어교육의 길찾기>. 동국대출판부.

김슬옹(2013). 세종학의 필요성과 주요 특성. <한민족문화연구> 42. 한민족문화학회. 7-42쪽.

김윤경(1948/1954). <韓國文字及語學史>. 동국문화사. [재수록: 한결 金允經全集 1: 朝鮮文字及語學史(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김일권(2007). <동양 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김주원(2013). <훈민정음-사진과 기록으로 읽는 한글의 역사>. 민음사.

김주필(2012). '訓民正音'의 性格과 '轉換'의 意味. <어문학논총> 제31집, 국민대학교 어문

학 연구소. 1-30쪽.
문효근(1993). 훈민정음 제자 원리. <세종학 연구> 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282쪽.
박동규(2001). 샤오 용의 사상이 한글 제정에 끼친 영향. <한글> 253호. 한글학회. 103-133쪽.
박선우(2009). 음성부호로서의 훈민정음 -훈민정음과 일반적 음성부호의 비교-. <한국어학> 43. 한국어학회. 125-150쪽.
박종국(2006). <훈민정음 종합연구>. 세종학연구원.
박종국(2012). <우리 국어학사>. 세종학연구원.
박창원(2005). <훈민정음>. 신구문화사.
박희민(2012). <박연과 훈민정음>. Human & Books.
반재원(2001). <한글과 천문>. 한배달.
방종현(1948). <訓民正音通史>. 일성당서점.
백두현(2012). 융합성의 관점에서 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어문론총> 57권 10호. 한국문학언어학회. 115-156쪽.
버나드 칼그렌/최영애 역(1983). <고대한어음운학개요>. 민음사.
신상순・이돈주・이환묵 편(1988). <훈민정음의 이해>. 한신문화사 .
심소희(1999). 동아시아 지역의 언어관-정음(正音) 사상의 연구. <중국언어연구> 10. 한국중국언어학회. 1-30쪽.
심소희(2009). <성음해>를 통해 본 서경덕의 정음관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58호. 中國語文學硏究會. 67-96쪽
심소희(2011). <洪武正韻·序>를 통한 正音觀 고찰. <中國言語硏究> 35집. 한국중국언어학회. 45-65쪽.
심소희(2013). <한자 정음관의 통시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강신항(1963). <訓民正音> 解例理論과 <性理大全>과의 聯關性. <국어국문학> 26. 국어국문학. 177-185쪽.
유창균(1968). 古今韻會擧要의 反切과 東國正韻과의 比較. <東洋文化> 8. 嶺南大學校東洋文化硏究所. 95-142쪽.
유창균(1989). 황극경세서가 국어학에 끼친 영향. <石堂論叢> 15. 東亞大學校 石堂傳統文化硏究院. 69-102쪽.
이강로(2000). <사성통해>에 관련된 운서의 비교. <한글> 249. 한글학회. 5-50쪽.
이경희(2007). 八思巴字와 訓民正音의 공통특징-편찬배경과 표음문자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43, 중국어문학회, 169-186쪽.
이극로(1932). 訓民正音의 獨特한 聲音 觀察. <한글> 5. 조선어학회. 198-201쪽 . [<國語學論叢>. 정음사. 1948. 재수록].
이기문(1996). 현대적 관점에서 본 한글. <새국어생활> 6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3-18쪽.
이동림(1970). <東國正韻 硏究> 상(연구편)・하(재구편). 동국대 국어국문학연구실.
이상규(2012). 잔엽 상주본<훈민정음>분석. <한글> 298호(겨울). 한글학회. 5-50쪽.
이숭녕(1959). 洪武正韻譯訓의 硏究. <震檀學報> 20. 震檀學會. 115-151쪽.
이숭녕(1969). <皇極經世書>의 李朝後期 言語硏究에의 影響. <震檀學報> 32. <震檀學會> 105-130쪽.
이숭녕(1972). <性理大全>과 李朝言語의 硏究. <東洋學> 2. 檀國大學校附設東洋學硏究所.

5-9쪽.
이영월(2004). <四聲通解>의 正音·俗音·今俗音 성격 고찰 : <洪武正韻>과 <蒙古字韻>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29호. 中國語文學硏究會. 119-131쪽.
이영월(2009). 훈민정음에 대한 중국운서의 영향 관계 연구 : 삼대어문정책을 중심으로. <中國學硏究> 50집. 中國學硏究會. 255-274쪽.
이정호(1972). <(해설 역주) 訓民正音>. 한국도서관학연구회.
임용기(1991). 훈민정음의 삼분법 형성 과정.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연찬(1971). 홍무정운역훈의 연구. <인문연구> 6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정우영(2005). 국어 표기법의 변화와 그 해석: 15세기 관판 한글문헌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26. 한국어학회. 293-326쪽.
정우영(2013), 세종시대 훈민정음 관련 문헌의 국어학적 재조명 -문헌 연구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2013년 세종시대 과학 문화의 재조명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7-72쪽.
정희성(1989). 수학적 구조로 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1989년도 한글날 기념 학술 대회 논문집>. 한국 인지과학회・정보과학회.
정희성(1989). 한글문자의 구조원리에 대한 과학적 고찰. <전자통신> 10권 4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99-117쪽.
조규태(2010). <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 한국문화사.
조성산(2009). 조선후기 소론계의 東音 인식과 訓民正音 연구. <韓國史學報> 36호. 고려사학회. 87-118쪽
조운성(2010). 동국정운의 운류와 고금운회거요의 자모운. <西江人文論叢> 28집. 西江大學校人文科學硏究所. 203-225쪽.
조희무(1998). <古今韻會擧要> 硏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주성일(2009). <사성통해>범례고1. <中國文學硏究> 38집. 韓國中文學會. 115-150쪽.
주성일(2009). <사성통해>범례고2. <中國文學硏究> 39집. 韓國中文學會. 215-245쪽.
진용옥・안정근(2001). 악리론으로 본 정음창제와 정음소 분절 알고리즘. <음성과학> 8권 2호. 한국음성과학회. 49-60쪽.
최영애(2003). <夢古字韻>과 그 음운특징 : 15,6세기의 한국자료를 통하여. <중국어문학논집> 24호. 중국어문학연구회. 89-115쪽.
최종민(2013). <훈민정음과 세종악보>. 역락.
최현배(1942/1982). <한글갈>. 정음문화사.
한태동(1983). 훈민정음의 음성 구조. <537돌 한글날 기념 학술 강연회 자료집>(단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재수록: 한태동(1985). 훈민정음의 음성 구조. <나라글 사랑과 이해>(국어순화 추진회 엮음). 종로서적. 214-266쪽.
한태동(1998/2003). <세종대의 음성학>. 연세대학교출판부.
홍기문(1946). <正音發達史> 상・하. 서울신문사 출판국.

Ferdinand de Saussure. (tr) Wade Baskin. 1959.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 (페르디낭 드 소쉬르/최승언 옮김, 1990, 《일반언어학강의》, 서울: 민음사)
G. K. Ledyard. 1966. “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 : The Origin.

Background. and Early History of the Korean Alphabet."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at. No. 6608333.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Ann Arbor.

G. Sampson. 1985. WRITING Systems : A linguistic introduction. London: Hutchinson Publishing Group; (신상순 역, 2000, 《세계의 문자체계》, 한국문화사)

Gilles Deleuze. 1969. Logique du sen. Paris: Editions de Minuit; (이정우 옮김, 1999, 《의미의 논리》, 서울: 한길사)

Margaret Thomas(2011). King Sejong the Great(1397-1450). Fifty Key Thinkers on Language and Linguist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49-55.

Sek Yen Kim-Cho(2001). The Korean Alphabet of 1446 : Exposition. OPA. the Visible Speech Sounds. Annotated Translation. Future Applicability Hwun Min Ceng Um. Humanity Books & AC Press(아세아문화사).